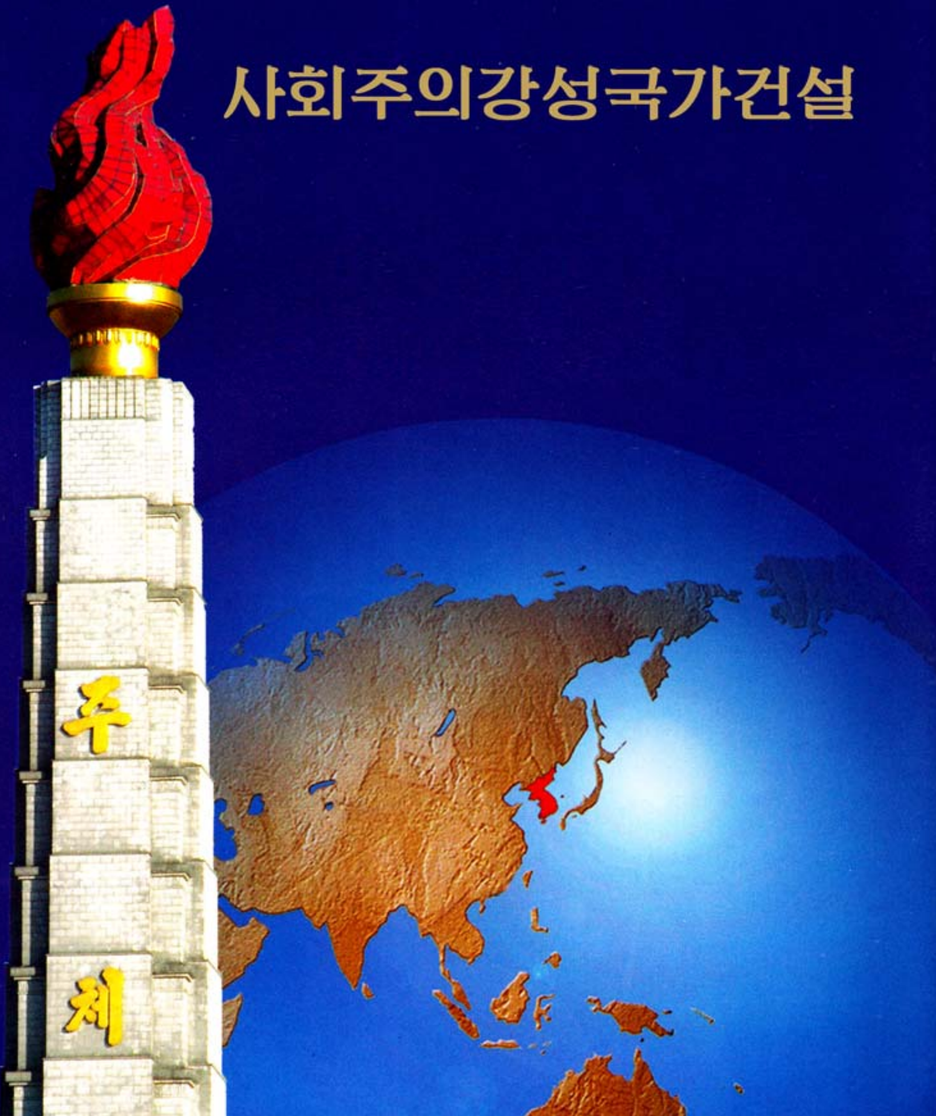
주체사상원리해설 5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 103(2014)년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김 정 은

머 리 글

이 책에서 독자들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구현된 조선에서 인류가 수수천년 바라마지 않던 리상, 강성의 꿈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지고있는가에 대하여 쓴 글을 읽게 될것이다.

행복과 강성번영, 써놓은 글을 보아도, 외워만 보아도 마음이 즐거워지고 가슴흐뭇하다.

행복을 지향하는것은 인간본연의 심리여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행복은 나라와 민족이라는 가장 큰 사회적집단의 생사존망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그것은 사람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사회적집단을 떠나서는 못사는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세계, 그런 나라를 지향하고 념원해왔다.

사람들의 리상향을 륜곽적으로 그려보인것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사람들의 리념과 리상을 담기는 하였지만 현실적가능성도 과학성도 희박한 공상에 불과하여 후날 공상적사회주의라고 이름지어지게 되였다.

력사에는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강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끊임없는 정복전쟁으로 나라의 령토를 넓히거나 물

질적부창조에서 혁신을 가져왔다든가, 기념비건설에서 기적을 안아오는 등 인류력사에 기록을 남긴 군사령관, 정치지도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와 실천은 다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요구와 강국건설의 리상에 대한 단면적인 리해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행복과 강성국가건설에 대한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실현시켜준다는것이 그처럼 힘든것이여서 어느 한 국가지도자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이라는 수레를 타고 싶어하지만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수레를 따라가는 운명에 불과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다면 강국에서 행복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리상은 도저히 실현불가능하여 리상으로만 남아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독자들이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아래의 글에서 이 대답의 무게와 그 진가를,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의 세기적리상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기를 기대하며 미흡한 필력으로 펜을 달린다.

차　　례

《우리 수령님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바치시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입니다.》

김 정 일

1. 《이민위천》의 건국리상

이 글을 읽고계시는 독자들은 리상에 대하여 어떻게 리해하고 계시는지.

조선말대사전에는 《리상은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의 종국적목표에 대한 표상》이라고 정의되여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리상에 대한 리해가 조금씩 차이날수 있지만 이 정의에 독자들모두가 크게 의견이 없으리라고 본다.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나름의 리상을 지니고 한생토록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게 된다.

사람들이 지니고있는 리상은 그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있는가에 따라 그 높이와 가치가 서로 차이나게 된다.

개인주의적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일생 개인의 립신양명과 부귀영화를 리상으로 내세우고 그 세속적이고 리기적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뛰여다닌다. 반면에 집단주의적인생관을 지닌 사람들은 사회적집단을 위해 헌신하면서 집단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는것을 리상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게 된다.

인류력사의 갈피를 뒤져보면 자신보다 먼저 사회적집단을 위하는 아름다운 리상을 지니고 한생을 참답게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다.

하지만 그 어느 영웅호걸도 정치지도자도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하는것을 리상으로 내세운 례는 없었다.

나라와 민족의 륭성발전과 전도, 인민의 행복은 령도자의 리상과 실천력에 크게 달려있다.

하기에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과 행복을 지향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자기들의 지향을 리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현실화할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령도자를 고대하게 된다.

수수천년에 걸치는 인류력사를 보면 이러저러하게 덕망으로 하여 사람들의 추억속에 남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한것으로 인정받는 정치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라 없이 지와 용이 있으면 인이 모자라고 인이 있으면 지와 용이 모자라 펼치는 정치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나 쌓은 공적에 있어서나 한 나라 한 민족의 기대에 원만히 보답하는 령수로는 되지 못했다.

더우기 인민대중의 자주적본성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본성적요구와 리상을 자기의 요구와 리상으로 내세운 령도자, 그 실현에 한생을 바쳐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마련한 그런 령도자는 없었다.

해솟는 동방에 위치한 나라 조선은 인류가 그처럼 바

라던 령도자,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과 행복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을 리상으로 내세우고 한생을 바쳐 실현한 위대한 수령들을 모신 행운의 나라이다.

1) 수령님 리상

태고적부터 뛰여난 슬기와 재능으로 찬란한 력사를 수놓아오던 조선민족은 근대에 이르러 조선봉건정부의 부패한 통치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져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국권을 빼앗긴 나라에는 망국의 비운이 깉어가고 외세에게 귀중한 모든것, 지어 자기의 말과 글, 이름까지 빼앗기고 조선인민은 비참한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해 있었다.

조선인민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리상사회를 건설해줄 위인을 일일천추로 고대하였다.

이때 총을 잡고 민족의 구세주로 일제와의 대전에 용약 나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조선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실현의 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백두의 밀림속에서 첫 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의 피어린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그날로부터 마음속에 간직해오신 숭고한 리상,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실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을 택하시였다. 그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주고 행복을 마련해주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시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되였으며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미제가 강요한 3 년간의 조국해방전쟁(1950-1953)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싸움이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쟁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펴시면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시였다.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한 사람의 전투원이 그토록 귀중한 때 대학생들을 전선에서 소환하여 공부를 시켰으며 전후복구건설계획도도 보아주시고 완성시켜주

시였다.

만사람이 부러워하는 전반적무상치료제가 불비쏟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실시되였다는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사랑의 열도와 부강조국건설의 웅대한 뜻을 잘 알수 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외국의 한 기자가 취재를 위해 최고사령부로 가게 되였다.

미제의 대규모적인 《신공세》와 관련하여 금후 전쟁의 전망이 어떠하겠는가 하는것이 그의 관심사였다. 잠간 기다리다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서 보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인가 보고계시였고 그이의 옆에 한 병사가 서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있었다.

안내일군이 지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의 학습정형을 검열하고계신다고 속삭이듯이 알려주었다. 그이께서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공부하러 떠나보낼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고계셨던것이다.

놀라웠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되돌아나왔다. 취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청소한 공화국에 힘에 부친 전쟁의 운명을 두고 온 세계가 우려하고있을 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승리를 확신하시고 조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향해 큰 걸음을 내짚으셨던것이다.

탁월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인민에 대한 열

화와 같은 사랑과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확신을 지니시고 미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위해 이룩하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다.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한생의 목표로 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천리마운동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동방에서 처음으로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나라를 세워주시였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이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 자위로 굳건한 강국으로 되게 하시려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풀었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전후 재더미우에서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다 들어 맞는 혁명공식이나 처방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기성리론이나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외세의 압력과 회유

기만에도 흔들림없이 국가와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한평생 자주정치를 해오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정사를 토의하시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집행하시였다.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로선을 내놓으시고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공고한 평화를 위한 자위적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어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하시고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키시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주체적인 자립경제건설을 다그치시였다.

14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워주시고 원료, 연료, 기술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해결하도록 이끄시여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주시였다.

자립경제건설과정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부 일군들이 수령님께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원유에 기초한 경제발전계획을 제기드린적이 있었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유가 나오지 않는 조선에서 원유를 원료로, 연료로 하는 경제를 건설해놓으면 경제가 자연히 자립성을 잃게 된다고 하시면서 나라에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

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한 결과 조선은 1970 년대 전세계를 휩쓴 원유위기를 겪지 않게 되였으며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자기 발전의 길을 걷게 되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지니시고 자주의 정치, 사랑의 정치를 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인가 외국의 한 인사를 만나신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은 인민대중의 사랑과 믿음속에 사는것이며 자신께서 살아가는 보람은 인민대중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그이께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원대한 뜻과 리상을 안으시고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늘 인민속에 계시며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80 고령에도 공장길, 포전길을 쉬임없이 걸으신 그이의 헌신적로고에 의해 조선에 강위력한 사회주의나라가 일떠서게 되였다.

외세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시였으며 피로써 지킨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운 국가령도자는 인류력사에 위대한 수령님 오직 한분이시다.

2) 장군님 리상, 뚜렷한 건국목표

부강조국건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리상이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리상이였다.

뜻밖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1994년의 마지막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다고,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것은 수령님의 뜻이였으며 위업이였다고 하시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려는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1995년의 새해 첫날 눈덮힌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여서도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드는것이 자신의 리상이고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간직하신 이 리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형성된것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벌써 어린시절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지니시였으며 조국을 빛내이실 원대한 구상을 안고계시였다. 해방직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청진바다가를 찾으신적이 있었다.

장쾌한 해돋이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에게 온 세상을 밝게 해주는 해가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러는 아드님에게 《저 붉은 해를 태양이라고 한단다. 태양은 세상만물에 빛을 주고 생명을 준단다. 해빛이 없으면 땅우의 모든것이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은혜롭고 위대한것을 태양에 비긴다. 우리 인민은 나라를 찾아주시고 밝은 앞날을 밝혀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고있다.》고 말씀해주시였다.

어머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들으시던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조선을 태양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밝게 웃으며 사는 제일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엄숙히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듯 어리신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크나큰 포부와 뜻을 가슴에 새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1960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면서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조선을 길이 빛내여가려는 결의를 담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시를 읊으시였다.

해솟는 룡남산 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 조선아 너를 떨치리

그이께서 그날에 읊으신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그이께서 지니신 가장 숭고한 리상의 력사적선언이였다.

절세의 위인들인 부모님들의 애국애민의 넋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이의 이 리상은 위대한 애국투쟁인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성장하시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 직접 참가하신 그이의 남다른 체험속에서 더욱 승화되였으며 의지로 굳어졌다.

그이의 애국애민의 숭고한 리상과 의지는 지난 세기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그이의 예지롭고 탁월한 령도에 의해 현실화되여 조선에는 사회주의 무릉도원이 펼쳐졌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에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 나라의 위력은 각방으로 다져졌고 인민이 누리는 삶은 값높고 보

람찬것으로 되였다.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값높은 삶과 세금철페,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날마다 늘어나는 사회적 혜택과 커가는 행복에 만족하며 그것이 전부인줄 알았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조국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대한 리상의 높이를 다는 알지 못했다.

1999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높이의 국가건설목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목표는 사랑하는 인민을 세계에 보란듯이 내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의 결정체이다. 위인의 높이는 리상의 높이이며 리상의 높이와 그 숭고성은 리상의 지향점과 원대함, 현실성과 과학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은 주체의 조국, **김일성**민족의 끝없는 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데로 지향되고 현실적가능성과 과학적방도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숭고한 리상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이 특수한 환경에 처한 가장 어려운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어 강성국가를 건설하실 구상을 하시고 그 준비를 갖추어오셨다.

20세기말 력사무대에서는 맑스주의를 교조적으로 대하고 지어 그 혁명적진수를 거부하며 수정주의정책을 실

시하던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막을 내리는 비극이 벌어졌다.

사회주의가 출현한 순간부터 수십년간 막대한 인적, 물적자원을 소비하며 그와 대결해오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촉수가 자주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사회주의조선에 뻗쳐졌다. 랭전시기의 쏘미로부터 조미로 대결구도가 바뀌였으며 국제경찰행세를 하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도수는 전례없이 높아졌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동지를 잃는 대국상에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조선인민앞에는 생사존망의 위기가 조성되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대를 틀어쥐고 제국주의와 맞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할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시고 선군정치를 펴시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결사의 의지, 초인간적인 헌신으로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민족의 태양으로, 어버이의 모습으로 새겨졌다. 그이의 선군령도따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며 조선의 정치사상적위력,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여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부대들과 국방공업부문들을 끝없이 찾으시며 군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이와함께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그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독특한 선군정치에 의해 세상사람들도 인정하는것처럼 조선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은 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였고 이제 남은 경제강국건설도 시간문제이다.

선군혁명의 길에서 몇해동안 간고한 투쟁을 벌려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 조건에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은 가까운 앞날에 실현할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로 되였다.

가능성이 곧 현실성인것은 아니다.

현실적조건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최단기간내에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하자면 그 실현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방도가 있어야 한다.

강성국가에로의 지름길은 무엇인가.

가장 짧은 력사적기간에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한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김일성**민족의 최강의 무기인 정신력을 발동하며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는것이다.

그 어떤 적도 건드릴수 없고 전체 인민이 아무런 걱정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은 이처럼 미래지향적이며 현실적가능성과 정확한 방도에 의거하고있는 과학적인 리상이다.

그러면 조선인민이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온 강성번영의 꿈, 수령님의 리상, 장군님의 리상의 결정체인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어떤 나라인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은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정치, 군사대국으로, 륭성번영하는 경제강국으로 빛내이며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잘 살게 하는 거창하고 보람찬 사업입니다.》

김 정 일

2. 강성조선의 모습

오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민이 건설하는 강성국가는 어떤 모습을 한 나라인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겹질긴 봉쇄속에 있는 작은 나라, 강적과 대결하며 뚫고온 고난도 적지 않지만 헤쳐야할 시련과 난관도 많은 조선이 과연 어떻게 강성하겠는지 …

인구수나 령토의 크기, 경제발전수준과 군사력 등을 척도로 대국의 징표를 론하는 기존관념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조선의 강성국가건설목표를 표상해내기가 참 어려울것이다. 십분 리해되는 일이다.

독자들에게 미리 말해두고싶은것은 조선인민이 건설하는 강성국가는 지금까지 인류사상사에 존재하였거나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고있는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가진 나라이라는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인구수가 많거나 령토가 큰 나라, 또는 경제발전수준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거나 무적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대국, 강국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강대국에 대한 정확한 리해라고 볼수 없다. 그것은 나라의 근본은 인민이요, 나라의 부흥번영을 요구하는것도, 강국을 건설하는것도 인민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시켜줄수 있는 국력을 종합적으로 갖추고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기준으로 강대국의 징표를 론해야 강국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신 강성국가는 어떤 나라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인민대중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시켜주는 사회주의에 토대하여 정치, 사상,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가 끊임없이 발전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조선의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개념은 령토나 인구수의 크기를 표현하는 자연지리적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의 견지에서 본 사회주의국가의 위력을 말하는 사회정치적개념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가 어떤 모습을 가진 나라인가에 대하여 크게 사회발전분야별로, 즉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문명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1) 정치사상강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상사람들도 인정하는것처럼 지금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은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강성국가라는것은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단합된 나라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강성국가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국력이 강한 나라를 말하는데 국력에서 기본은 정치사상적위력이다.

국력에서 기본이 정치사상적위력인것마큼 강국의 첫째가는 징표는 정치사상적위력이다.

정치사상적위력이 국력중의 제일 국력으로 되는것은 정치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며 그 한계를 모르는 사상의 위력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의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하나의 사상, 자주사상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된 나라,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대내외적으로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가 강력한 정치사상적위력을 지닌 진정한 강국이다.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

하며 그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민심은 천심이요, 인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것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그 무엇에 비할바없이 중요한 문제여서 예로부터 철학자들은 덕치사상을 내놓았고 정치가들은 그 실현에 애썼건만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였다.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뜻과 정으로 굳게 뭉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정치사상강국건설에 대한 인류의 꿈은 20세기 조선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이 정치사상강국으로 될수 있은것은 당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자주사상을 내놓고 대내외적으로 그들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이 요구와 지향을 실현시켜주는 자주정치를 시종일관 실시하였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민들모두를 한없는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인덕정치를 실시하였기때문이다.

자주정치는 조선로동당을 특징짓는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정치리념과 높은 정치실력,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자주정치를 하시였다. 하여 당의 정치적지반을 굳건히 다지고 나라의 존엄을 높였으며 그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교조와 사대를 배격하고 독창적인 자주정치를 해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뒤떨어진 농업을 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 협동화가 필요하였지만 식민지적 및 봉건적질곡에서 해방되여 제땅을 가지고싶어하는 농민들의 소원을 헤아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전후에는 협동화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와 혁명적열의에 맞게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하는 독창적인 농업협동화방침을 내놓고 실행하시였다.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개인수공업자들과 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교양개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로선과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어오시였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 혁명의 리익을 우선시하신 그이의 자주정치에 의해 당의 사회정치적지반이 공고히 다져지고 조선은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선군정치방식을 내놓고

실행하시여 현 대 자주정치의 산모범을 보여주신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주권국가를 예고없이 폭격하고 침공하며 한 나라 국가지도자를 마음대로 국제재판정에 끌어내여 저들의 목적에 맞게 판결하는 제국주의의 란무가 펼쳐지는 국제무대에서 나라와 민족의 권익을 지키는 자주정치를 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국민의 리익옹호를 구호로만 남기고 제국주의의 강권과 횡포로 비참하게 생을 마친 이라크의 싸담과 전유고의 밀로쉐위츠의 실례가 리해를 충분히 도모하리라고 본다. 드놀지 않는 정치신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당은 절대로 인민을 배반할수 없다고 하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자주의 길,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였다.

걸음걸음 희생을 동반하는 선군의 길에서 그이께서는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지키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부강번영,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쌓으시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이렇게 쓰고있다.

《1990 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나라들을 대륙별로 혹은 나라별로 료리해 집어삼키군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집어삼키는데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였던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목안 깊숙한 곳에 가시 하나가 박힌것과 관련된다.

그 가시란 한반도의 북부지역에 꽂혀있는 반제반미의 선봉기, 사회주의 붉은기이다. 미국은 곧바로 가시제거를 위한 작전에 착수했으나 그 가시를 뽑을수 없는것은 물론 뽑으려고 하면 할수록 목이 아니라 심장에 점점 깊이 박혀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북이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응한 선군정치로선을 전면에 내걸었기때문에 일어난것이다.

북은 모든 국가정책에 군사력강화를 우선시하는 선군정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

북은 선군정치를 기치로 해서 인민군을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핵과 미싸일 등의 첨단무기를 개발했다.

열정에 넘치던 클린톤, 로장 부쉬, 교활한 오바마까지도 20여년동안 이 붉은기를 대상으로 전쟁을 시도하였지만 수많은 대북전쟁계획들은 어느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가시의 효과, 선군의 효과때문이였다.

그동안 미국에 편승하였던 나라들은 미국의 위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20여년에 달하는 북미대결전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가시의 <저비용, 고효률> 에 주목하게 되였다.

큰 나라, 작은 나라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횡포에 대한 필승의 비법을 북의 가시전략, 즉 선군로선에서 찾고 반제반미전선을 다시 형성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작은 가시가 대륙을 움직이는 중심축으로 자기 역할을 확장하는 셈이였다.》

나라와 민족의 최고리익을 지키고 번영의 토대를 마련해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철저한 자주정치, 선군정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정치사상강국으로 될수 있은것은 조선로동당이 자주정치와 함께 이민위천의 인덕정치를 베풀기때문이다.

대원수님들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그들의 리익을 최우선시하시며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그들을 자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대원수님들께서는 인민들을 철저한 자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정신적대를 꿋꿋이 세워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구석구석 보살펴주시였다. 인민을 한품에 안고 그들의 사회정치적생활로부터 물질

생활, 문화정서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대원수님들의 사랑은 온 나라를 수령을 친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시켰으며 모든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뜻과 정으로,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치게 하였다.

력사에는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사상을 내놓고 실천하여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고 이름을 남긴 정치지도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라 없이 인민대중을 하늘로 여기고 그들의 자주적요구실현에 헌신하여 국민모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워싱톤은 《국부》로 불리우기는 했지만 몬로주의나 고립정책을 쓴것으로 하여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낼수 없었고 《영웅》으로 불리웠던 링컨은 제한된 흑인(후에는 그들의 지지마저 잃었다.)들과 노예들로부터 《동정》을 받았다.

마하트마 간디는 《아버지》, 《위대한 넋》으로 내세워졌지만 국민회의파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였으며 이슬람교파나 힌두교파의 화합과 융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것을 삶의 목표로, 보람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여 조선에는 지도와 대중의 결합의 극치인 일심단결의 화원이 꽃펴났다.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위대한 시대사상의 조국으로,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으로 빛을 뿌릴수 있다.

조선은 전체 인민이 자주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사상강국이다.

조선인민은 누구나 다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주고 자기의 운명개척과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은 주체사상뿐이라는것을 깨닫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고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가는 그들의 사상정신세계는 그들이 추켜든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수령을 옹위하며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한목숨 바쳐서라도 결사관철하는것은 조선인민의 삶의 요구로, 영예로, 량심으로 되고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나날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기간 조선인민이 사회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변혁적성과들은 혁명의 길에서 맺어지고 이어지는 수령과 인민간의 혈연적뉴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이 나라 북변의 어느 한 지방산업공장에는 수십명의 아이들을 맡아 어였하게 키워 조국앞에 내세우면서 공장

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를 실현한 처녀지배인이 있다. 처녀의 몸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기꺼이 맡아 안아키우며 숨죽었던 공장을 살려 현대화하고 생산정상화를 실현한 그의 훌륭한 인격의 밑바탕에 놓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 부모잃은 아이들을 두고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그이께 기쁨만을 드리려는 깨끗한 충정의 마음이였다.

자신보다 먼저 수령을 생각하고 조국을 위하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은 이 나라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수십명, 지어 백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가정들도 있고 수도를 떠나 농장과 탄광, 광산 등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진출하여 조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뜻하지 않은 정황에서 최후를 각오하는 순간에 수령의 안녕과 조국의 번영을 축원하며 자기의 한몸을 바쳐 동지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다.

이런 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워주고 자주의 사상을 심어주며 걸음걸음 손잡아 값높은 삶의 길로 이끌어준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자라났다.

이들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에서 누구나 전체 인민이 수령과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며 생사고락을 함께 해나가는 주체의 사상강국의 참모습, 그 위력을 볼수 있다.

위대한 사랑의 세계가 세인을 경탄시키는 충정의 세계를, 많은 나라들이 이루고싶어도 이루지 못하였던 정치사상강국건설의 꿈을 현실로 펼친것이다.

세상에 경제대국이요, 군사대국이요, 령토, 인구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있어도 정치사상강국은 조선 하나뿐이다.

정치사상적으로 굳건한 나라는 일시적으로 시련을 겪어도 전도가 양양한 나라이며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병든 나라는 억만재부를 가지고있어도 미래가 없는 나라이다.

세계를 굽어보며 부언하건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나라들은 언제가도 정치사상강국이 될수 없다는것이다.

2) 군사강국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자면 정치사상적위력과 함께 군사적위력도 튼튼히 다져야 한다.

강한 군사력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는것은 물론이요 강국건설도 성과적으로 할수 없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출현한 때로부터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제 1 차, 제 2 차 세계대전을 내놓고도 전통적개념의 전

쟁과 지역 혹은 집단사이의 무장전투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 1995년 한해에만도 지구상에서는 50여차례의 나라와 나라사이, 지역 혹은 집단사이의 무장전투가 있었었다.

진보와 반동, 자주세력과 지배세력간의 대립으로 전쟁이 그칠새 없는 력사속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은 군사력강화의 필요를 절감하고 그에 막대한 자금과 품을 들여왔다. 조선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및 력사발전의 특성으로 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군사력을 튼튼히 다져야 할 필요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였다.

지정학적으로 렬강들의 짬에 끼워있어 간섭과 침략을 많이 당하던 조선이 썩어빠진 조선봉건정부의 500년통치에 국력이 쇠퇴해졌으며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게 되였다.

1905년 조선을 강탈하던 당시 일제는 6 000t 급이상의 최신 군함만도 12척에 대포, 기관총 등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춘 륙군장비무력이 20만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조선은 제힘으로 소총 한자루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였고 군대도 9 000명정도였다.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애국헌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해방을 맞이한 조선은 또다시 미제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분단되게 되였다.

해방후 5년, 공화국창건 2년만에 조선은 미제가 일으

킨 3 년간의 전쟁을 치르었으며 반세기를 넘는 오늘까지 절반땅 남조선을 강점한 제국주의의 괴수 미제와 대결해오고있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속에서 찾은 철의 진리는 인민군대의 강력한 총대우에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가 있고 발전과 번영이 있다는것이다.

한세대에 두차례 해방전쟁에서 강적인 일미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선군혁명령도를 하시여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군사중시사상을 계승하여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전면대결전이 강도높이 벌어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를 하시여 조선을 무적필승의 사회주의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위력한 군사강국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군사강국은 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우월한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준비되고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된 나라, 자립적이고 현대화된 국방

공업을 가진 나라이다.

조선은 우에서 지적한 사회주의군사강국의 면모를 다 갖춘 불패의 나라이다.

조선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을 가진 군사강국이다.

나라의 군사력은 군인과 무장 2 대요소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기본은 군인이다.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것은 무기나 전투기술기재가 아니라 총을 쥔 군인대중이며 군대의 전투력상태는 그들의 정치사상적각오와 준비정도에 달려있다.

조선에서는 혁명군대의 첫째가는 풍모를 정치사상적풍모로 보고 창건 첫날부터 군인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렸다.

군인들이 우선 국가도 없이, 공고한 후방도 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백두광야에서 풍찬로숙하며 유격전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백만관동군과 맞서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지니고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각오를 지니도록 하였다.

1950 년 미제가 일으킨 3 년간의 조선전쟁은 조선인민군이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100 여년의 전쟁력사와 군사기술적우세를 가진 미제국주의와 그 15 개 추종국가군대를

타승한 위대한 전쟁이였다.

다음의 패전장군들의 진술은 우의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다.

《솔찍히 말하면 조선전쟁은 커다란 군사적재난이며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적과 싸운 잘못한 전쟁이였다.》(전 미합동참모본부의장 브랫들리)

《미국이 조선에서 격파되였다는것은 매우 명백한 일이다. 세계에 그들<조선인민군>을 격퇴하기에 충분한 부대는 없다.》(미 호전장군이였던 타프트)

오늘 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군사를 제일국사로 하고 인민군대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에 의해 더욱 높아졌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90 년대중엽부터 생애의 마지막해인 2011 년까지 조국수호의 결단과 애국애족의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2 490 여개의 무력부문단위를 현지시찰하시였다.

이 나날에는 온 하루 1 000 여리 눈보라길을 달려 전선동부의 부대들을 찾으신 날도 있고 신변의 위험에도 아랑곳없이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작은 섬초소를 찾으신 날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다 가보시겠다고 하시며 명절날, 휴식일 가림없이 인민군부대들을 찾고찾으시였다. 찾으시여서는 교양실에

들리시고 식당과 세목장, 창고를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전군에 군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화면반주음악기재와 오락기구, 악기와 체육기재들을 일식으로 보내주시고 병사들의 고향소식도 정상적으로 상영하도록 해주시였다.

부대들을 찾으시여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근무자들의 소박한 예술공연도 보아주시고 장병들의 소망도 헤아려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근무에 나간 병사들이 기념사진을 못찍어 서운해 할 심정까지 헤아려 기다려주시고 녀성해안포병들이 바다바람에 얼굴이 튼것이 마음에 걸려 약크림까지 보내주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선군령장의 품속에서 조선인민군군인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제일 생명으로 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영웅적희생정신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하며 혁명적기강이 서고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고결한 정치사상적풍모의 소유자들로 자라났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위력은 1999년과 2006년에 있은 서해해상전투와 2010년 연평도포격전 등에서 과시되여 세인을 놀래웠다.

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위력에 대하여 이전 쏘련의

국방상이였던 드미뜨리 야조브는 자기의 글 《**김정일**최고사령관과 필승강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조선인민군대에서 사상의 일색화와 애병풍조는 최고사령관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전군대오를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일심동체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군력을 백배, 천배로 강화해주고있다.

총잡은 사명감을 훌륭히 자각하고있는 조선군인들은 자기 수령, 가지 당, 자기 사회주의에 대한 결사보위의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있다. 그들이 지금 <전군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는 구호를 부르는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장령과 군관도 사관과 병사도 최고사령관을 단순한 복종관계에 있는 군통수라기보다 생의 어버이, 군복무의 스승으로 받들고 따르고있다.

조선인민군에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은 권력행사이기전에 믿음과 사랑에 기초를 두고있고 전사의 복종은 의무이기전에 존경과 의리에 기초하고있다. 이것은 조서인민군대에서만 볼수 있는 특유한 군풍이다. 승리만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군령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언제나 승자가 될 목표밑에 일당백으로 준비하고있는 조선군인들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상태는 가장 높은 현대적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을 내눈으로 직접 보았다.》

조선은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과 함께 그들의 군사기술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데도 언제나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군은 최신고성능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가지고 백두의 훈련열풍속에 필승의 **김일성, 김정일**전법과 대담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났다.

조선은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된 불패의 군사강국이다.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승의 군사전법과 기술로 무장하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나의 군사적력량으로 조직화되여왔다.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지대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방어진지로 튼튼히 꾸려졌다.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국방공업발전에도 힘을 넣어 조선은 오늘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되였다.

조선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3 차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성공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이다.

《미싸일은 사정거리와 성능에 비례하여 외교력을 발생시킨다.》이것이 국제정치의 행동원리로 되고있는 현시점에서 3 차에 걸쳐 100% 국산화된 인공지구위성발사에 성공한 조선의 정치, 외교적권위와 군사적위력에 대해서는 더 론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모든 현대적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 지어 세계의 몇

개 나라밖에 만들지 못하는 요격미싸일종 합체까지 만들어내는 조선의 국방공업발전수준은 2010 년과 2012 년에 있은 조선로동당 창건 6 5 돐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 돐 경축 열병식에서 시위되였다.

조선민족은 한세기전만 하여도 힘이 없어 왜적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 대국들에 구원을 애걸하고 만국평화회의에서 망국노의 설음을 배를 갈라 피를 쏟으며 하소연하던 약소민족이였다. 빼앗긴 나라를 찾자고 국채보상운동을 벌리고 《자아수양》, 《실력배양》을 부르짖는가 하면 독립시위나 산발적인 독립군운동에 국권회복의 희망을 싣던 인민이였다.

이런 약소민족을 안아일으켜 항일대전에 묶어세우고 나라를 찾아주신 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주신 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되자 곧 병기공업을 창설하시고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으시였다.

전후 안으로는 남조선에 미제가 둥지를 틀고 끊임없는 북침소동을 일으키고 밖으로는 수정주의자들의 투항주의적책동과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이 우심해지는 나라안팎의 정세를 꿰뚫어보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관철해오시였다.

독창적인 자위적군사로선(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

민무장화, 전국요새화)을 제시하시고 심혈을 바치고 로고를 바쳐 관철하시여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져놓으신 자립적국방공업의 토대에 의거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로 나라를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 민족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동방의 자그마한 나라가 그것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 있는 조선이 군사강국으로 된데 대한 세계의 반향은 어떠한가.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은 《…영국수상이였던 쳐칠은 쓰딸린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는 호미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락후한 로씨야를 인계받아가지고 원자탄으로 무장시켜 다음세대에 물려주었다고 하였다.

…

김정일국방위원장이시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그러한 지위에 올려세우심으로써 세계적인 지도자로 명성떨치고 계신다.》고 썼다.

로씨아신문 빠뜨리오뜨는 《수십년동안이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총동원하여 제재와 봉쇄, 고립, 압살정책을 써왔는데 약화되기는커녕 더욱더 강해진 조선, 우주강국으로까지 우뚝 솟은 그 현실을 인정하기가 그들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울것이다.》라고, 요르단 신문은 《조선에서의 위성

발사를 계기로 서방세계는 미치고 리성을 잃었다. 그것은 조선이 서방의 어떤 기술에도 의존하지 않고 순수 자체의 힘으로 위성발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였기때문이다.》고 썼다.

조선이 련이은 위성발사와 핵시험으로 군사력을 다져나가자 미제는 유엔안전보장 리사회 《제재결의》에 이어 보다 강도높은 《제재결의》를 발표하며 부산을 피우고 남조선당국은 《북핵위협제거》를 떠들며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다.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에서의 패배교훈을 망각한 미제, 약자들과의 전쟁아닌 전쟁에서의 승리에 자만도취한 미제는 빈말을 하지 않는 조선의 배짱과 의지, 막강한 자위적군사력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만족을 모르는 강도심보에 핵몽둥이를 가지고 남의 부를 집어삼키는데 재미를 본 미제를 등에 업은 남조선 집권자들도 한 겨레가 애써 마련한 군사력의 덕을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입고있는지를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깨닫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잡지 《말》 2003년 6호는 《<한>반도핵무기 동원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총 손실액은 대략 21조 204

억 4 000 만 US$, 평화보장되는 경우 이남국민 수십조 US$의 덕을 보게 된다.》고 썼다.

조선은 앞으로도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지배주의, 제국주의가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선군의 기치높이 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것이다.

3) 경제강국, 문명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정치사상진지와 군사력이 튼튼히 다져진 조건에서 이제 경제문제만 풀면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면모에 경제강국, 문명국의 면모까지 갖춘 나라이다.

조선은 오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를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으로 만들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다.

그럼 아래에서 조선인민이 건설하자고 하는 경제강국, 문명국의 징표는 무엇이며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조선인민이 어떤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가에 대하여 해설하기로 한다.

조선인민은 우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강력한 국가경제력은 자주정치와 자위적군사력의 믿음직한 담보이며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 그들이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조선에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에서 경제강국을 건설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존관념으로 그 징표를 론하고있다. 그들은 조선이 언제까지 GNP(국내총생산액)에서 세계 선진국가들의 수준에 도달하겠다는것인가, 주요제품생산지표의 모델을 어느 나라의것으로 삼고있는가고 질문하고있다.

경제건설과 발전의 근본목적을 인민의 복리증진에 두는 조선에서는 경제강국의징표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론한다.

조선이 건설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풍부한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자주정치와 자위적군사력을 물질경제적으로 담보해줄수 있는 발전된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다.

사회주의강국의 경제는 자립적이고 현대화, 정보화되

여야 한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이며 그 발전은 국가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국경제의 지속적이고 공고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우기 경제력이 강국의 지위에 이르게 하자면 경제의 자립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 자기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이다.

자립경제는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중공업과 경공업제품,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다방면적인 경제구조,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을 종합적으로 갖춘 경제이다. 또한 자체의 기술과 자체의 원료, 연료에 토대하여 자체의 민족간부에 의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경제의 자립성과 함께 현대화, 정보화는 경제강국의 기본 징표의 하나이다.

현대화되고 정보화된 경제는 모든 부문이 최신현대기술로 장비되고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이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제이다.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는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실리보장, 국가적 및 인민적 수요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담보하여주는 경제를 가진 나라, 인민들이 끊

임없이 높아지는 생활상요구를 충족하며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

사회주의국가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면서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 조건을 마련해주자는데 있으며 경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

조선에서는 경제건설에서 경제의 자립성보장, 주체화실현에 주되는 힘을 넣어왔다.

이 과정에 경제가 자체의 힘으로 발전하며 자기 인민을 위해 복무할수 있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였다.

또한 원료, 연료, 자재의 수입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원료, 연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근년간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철과 비료, 섬유와 내화물을 나라에 흔한 원료, 연료로 생산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에서는 이 성과들을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이룩한 승리라고 자부하며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주체의 내화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과학과 생산이 밀착되는 세계적추세에 맞게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인민경제의 기관차인 금속,

전력, 석탄, 철도, 운수부문의 발전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경제전반의 현대화수준을 비상히 높여나가고있다.

그 과정에 첨단, 최첨단수준의 과학기술들이 개발도입되였으며 경제가 지식형으로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고있다.

지식경제시대 야금공업의 정수인 전기로의 초고전력화가 실현되고 화학공업부문에서 석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철도부문에서 교류전기기관차를 생산해냈다.

특히 현대산업의 기둥인 기계공업부문에서 CNC 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하는 기적을 안아왔다.

CNC 공작기계 본체가공용어미기계생산과 콤퓨터통합생산체계에 의한 생산공정의 확립으로 CNC 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한 성과에 토대하여 경제전반에서 최첨단돌파전,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적으로 개건되고 첨단, 최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하는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일떠서고있다. 경제건설성과가 확대되는것으로 하여 고난의 흔적이 가셔지고 인민들의 생활이 개선되여가고있다.

인민생활문제는 곧 인민들의 식의주문제이다. 조선인민이 예로부터 품어온 부럼없는 식의주생활에 대한 념원은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것이다.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려는 인민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조선에서는 인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경공업과 농업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에 국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궁궐같은 기와집에서 살고싶었던 조선인민의 념원은 로동당시대, 선군시대에 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일떠선 사회주의선경도시, 선경마을에서 활짝 꽃피고있다.

사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나 골머리를 앓고있는 주택문제가 조선에서는 원만히 해결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민생활문 제해결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서는 뒤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만하기로 한다.

물론 지금은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은 풍부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고있지 못하며 경공업과 농업부문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독자들이여 생각해보시라.

지난 세기 40 여년간 일제의 가장 악독한 파쑈통치를 받아 극도로 편파적이고 기형적으로 된 경제가 미제가 강요한 전쟁으로 다 파괴되여 재더미로 되였댔음을, 공화

국의 공업발전력사는 얼마나 되며 그 짧은 기간 조선의 경제에 대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제재의 도수가 어떠했는가를.

1950 년대부터 《수출통제법》(1950.6.28), 《적성국무역법》(1950.12.17), 대외원조법(1962.8.1), 《수출입은행법》(1986.10.5), 《와쎄나》협정(1996.7.12), 《국제금융기구법》(1994) 등 미제가 조작한 조선에 대한 제재법은 무려 40 가지이다. 이 법들에 의해 조선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제재를 받고있으며 세계 많은 나라들과의 일체 무역, 금융거래, 과학기술교류전반을 금지당해왔다.

미제와 그 련합세력은 주요 공장설비, 첨단기술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까지 이중용도라는 딱지를 붙여 거래를 제한, 금지하고있다.

미제와 그 련합세력 은 2006 년과 2009 년, 2012 년, 2013 년에 걸쳐 위성발사와 같은 조선의 자주적권리행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를 련방 채택하여 조선의 경제발전을 전면적으로 가로막고있다 .

이처럼 극악한 조건에서 이룩된 조선의 경제건설성과는 사실 대단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제재책동이 강화될수록 조선인민은 더욱 분발할것이며 경제의 자립성과 현대화, 정보화수준은 나날이 높아질것이다.

조선인민은 오늘날 사회주의원칙, 군사선행,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국방공업

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과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따라 경제건설에 주력하고있다. 경제발전을 다그쳐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하면 조선은 사회주의강성국가로서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게 될것이며 인민들은 값높고 보람있는 정치생활과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에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생활까지 누리게 될것이다. 다음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조선이 건설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은 인민들의 문화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선진강국이다.

문화에는 과학, 교육, 문학예술, 체육, 보건 등이 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은 과학기술과 교육, 문학예술과 체육, 보건부문이 가장 높은 발전수준에 있는 나라이다.

조선에서는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문화건설로선을 내놓고 실행하여 문화건설에서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의 과학기술과 교육은 그 발전수준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다. 현 시대는 사회발전과 사회생활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강화된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이다.

경제분야만 놓고 보아도 20세기초 경제장성에서 자원, 로력, 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1970년대에 들

어와서는 과학기술이 75%, 자원, 로력,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되였으며 1990 년대이후로는 생산장성의 거의 모든 몫이 과학기술발전에 의하여 이룩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내놓고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 세계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금속공업부문, 기계공업부문에서 최첨단기술을 련이어 개척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생물학분야에서는 첨단, 최첨단기술들인 유전자해석기술, 생명정보기술, 클론기술, 게놈에 의한 유전자전이기술, 유전자해석에 기초한 생물식별기술, 독성과 공해가 없는 새 생물농약 아베르멕틴을 개발하였다.

나노항균섬유생산공정확립과 주사굴현미경, 고려약재에 의한 항암제생산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앞에서도 얘기하였지만 조선은 인공위성발사에서 3 차례 성공하였다. 지구를 굽어보며 돌고 도는 조선의 인공지구위성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을 6 개 령역에 12 가지 분야로, 생물의료기구산업, 생물공학산업, 지능기계산업, 프로그람산업, 초전도산업, 태양에네르기산업, 공간산업, 해양산업 등을 포괄하는것으로 보고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의 과학기술전반이 첨단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의문없이 리성적으로 판단할수 있을것이다.

조선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세계적인 성과들은 나라의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교육발전과 뗄수없이 련관되여있다.

조선은 전체 인민이 어려서부터 일생동안 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무료로 공부하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이다.

조선에는 나라가 어려울 때, 경제토대가 닦아지기도전에 인민적시책으로 시작되여 오늘에 이른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 전반적 12 년제 의무교육제도와 학업을 전문으로 하거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제도가 정연하게 수립되여있다. 중등의무교육제도하에서 학생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 사회주의도덕을 지니고 기초기술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자라난다.

고등교육제도하에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으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전문지식을 배운다.

교육을 나라의 미래를 가꾸는 만년대계의 사업으로 보는 당과 국가의 깊은 관심과 배려는 수백만의 쓸모있는 지식인대군을 키워냈다. 조선로동당은 현시기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모든 부문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였다.

조선에서는 당의 부강조국건설사상을 실천으로 받드는 혁명인재들을 키워낼수 있게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체계를 완성하는것과 함께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조선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전반적이고 인민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체계의 면에서 세계의 본보기교육국가, 으뜸가는 문명국으로 된다.

조선은 문학예술과 보건, 체육발전을 다그쳐 사회주의문명국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어나가고있다.

조선의 문학예술은 인간이 인간답게 자주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다운 사상과 도덕,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주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며 민족적형식을 갖추고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다.

조선의 문학예술은 시와 소설, 가극,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등 그밖의 여러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였다.

이것은 세계적인 무용표기법과 유명한 5대혁명가극, 5대혁명연극,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의 창조, 여러 예술분야에서의 세계명작형상수준을 통해 잘 알수 있다. 민족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형식에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것으로 하여 조선의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문화적소양을 높여주고 그들을 참된 삶과 부강조국건설에로 힘있게 고

무추동하고있다.

조선의 문학예술은 그가 지닌 사명과 취하는 형식, 담고있는 내용과 발전수준, 사상교양적의의에 있어서 비길데 없이 훌륭한 문학예술이다.

조선은 세상사람들모두가 부러워하는 무상치료의 나라이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의학의 본질을 예방의학으로 보고 병예방에 힘을 넣어 전염병을 완전히 없앴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말단주민지구에 이르기까지 병원을 세우고 인민들에게 전반적무상치료혜택을 주고있다.

병원수와 의사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여 의사들이 담당주민들에 대한 정상적인 검진과 병예방치료를 하고있다.

의학과학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발전시키며 전문병원들을 현대적으로 많이 건설하고 병원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선진국가들의 수준에 확고히 따라세우고있다.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아래서 인민들은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없이 60 청춘, 90 환갑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고있다.

체육도 세계를 향해 힘찬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지난시기 조선의 체육인들은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경기등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축구, 태권도, 유술, 사격, 마

라손, 체조, 력기종목들에서 최우수성적을, 어떤 종목들에서는 3 련승, 4 련승을 기록하였다.

일찌기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가 실현된 조선에 대고조분위기를 돋구고 민족의 기상을 떨치는 새로운 체육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체육에 대한 당과 국가의 커다란 관심과 배려, 정확한 체육정책과 사상전, 속도전, 투지전, 기술전으로 경기마다에서 우승하여 창공에 공화국기를 높이 날리려는 선수들의 드높은 열의와 애국심으로 조선의 체육은 가까운 앞날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문명한 생활환경 역시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중요징표이다.

조선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와 문명한 생활환경에서 살려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 공장과 일터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전군중적운동으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사회주의적생산문화, 생활문화가 꽃펴나는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여 나가고있다.

이미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과학기술과 교육, 문학예술, 체육과 보건의 발전과 생활환경일신을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 조선은 온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문명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될것이다.

머지않아 조선인민은 인류문명의 상상봉에 올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될것이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입니다.》

김 정 은

3. 강국에로의 길

우리는 앞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어떤 모습을 한 나라인가에 대하여 보았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도 적지 않지만 웅대한 건국목표에 도달하자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인민대중이 세세년년 품어온 꿈, 불패의 강국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숭고한 리상을 실현하자면 뚜렷한 건국목표와 함께 목표로 향한 정확하고 빠른 길이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강국에로 가는 가장 곧바른 지름길은 주체의 길,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불패의 군력을 다지며 새 세기 산업혁명을 다그쳐나가는 길이다. 조선에서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침략책동에 맞서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 하고있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지적 및 도덕의리적인 단결이다.

인민대중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이며 가장 공고한 단결은 군대와 인민에 대한 수령의 사랑과 믿음을 근본원천으로 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다.

옛 병서에 이르기를 한 무리의 농군을 군사삼아 배수진을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으면 그 어떤 적과

도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고 하였다.

하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반영하고 그들의 참된 삶과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고 자애롭고 영명한 령도자를 유일중심으로하는 일심단결의 위력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진실한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추동력으로 되는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인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정신,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자체의 힘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 등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모든 우월한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일심단결은 조선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기적과 위훈을 아로새겨 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자주의 기치를 드시고 항일전의 진두에 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태양으로 받든 열혈의 투사들에 의해 조국해방의 력사적 승리가 이룩되였다. 수령은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일심단결로 조선

인민은 전쟁을 이겼다.

미제가 100 년이 걸려도 못일어선다던 파괴된 조국을 3 년안에 복구하였으며 14 년만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다.

1990 년대 후반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가 집중되여 조선이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시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은 그 위력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주의수호자로 남은것만도 기적인데 조선인민은 장군님을 받들어 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1995 년이후 10 년동안에만도 10 여만개의 기본건설대상을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사회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군대와 인민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장군님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강국건설의 나날에 원자탄보다 더 큰 위력을 보여주었다.

지나온 조선혁명의 력사는 일심단결이야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며 필승의 무기라는것을 증명해준다.

일심단결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새로운 력

사적단계에 들어섰다.

많은 나라들이 이루고싶었으나 이루지 못한 공고한 단결, 조선로동당이 세기를 이어 이룩한 일심단결의 계승과 새로운 높이에서의 공고화에 의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가 앞당겨질것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에로 가는 진로는 일심단결과 더불어 불패의 군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나가는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존재와 발전을 위해 군력을 다져야 한다는데 대해 다른 나라의 실례와 력사를 들어 론할 필요가 무엇이랴.

불패의 군력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필수불가결이라는것은 최근 몇달동안에 있은 조선과 미제와의 대결이 론박할 여지없이 증명하고있다.

2012 년 12 월 12 일 조선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 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자 미제는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2013년 1월 22일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유엔안전보장리회결의 《제 2087 호》를 조작하였다. 그리고 3, 4 월에 남조선군과 동맹군무력까지 동원하여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핵전략폭격기《B-52》와 스텔스전략폭격기 《B-2A》, 핵을 탑재한 구축함까지 끌어들여 로골적인 핵공갈을 하였다. 철수했던 미군 제23화학대대를 다시 끌어들였으며 5 월에는 련합반잠훈련까지 벌려놓고 핵동력항공모함 《니

미쯔》호와 초대형핵동력잠수함까지 끌어들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하였다.

자위의 군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져나가야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병탄하고 조선인민을 현대판노예로 만들려는 미제의 야망을 짓부시고 민족의 생존권과 사회주의를 지키며 강국건설을 마음먹은대로 진행할수 있다.

불패의 군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지향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수 없는 민족의 생명, 재보로 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강국에로의 지름길이다.

조선에서의 새 세기 산업혁명은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운영되고 발전하는 현대화된 사회주의지식경제로 일신시키기 위한 경제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이다.

20세기에 기계제산업의 시대를 펼친 사람의 지적능력은 급격히 확대발전하여 21 세기에는 지식경제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펼쳐놓았다. 지식경제시대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류통 및 응용에 직접 의존하여 사회경제발전을 추진해나가는 시대이다.

현시기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사회발전과 사회생활에서 노는 역할도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자연, 사회과학내부가 종합적으로 발전하고 자연, 사회과학이 서로 교차침투하며 종합적으로 발전하여 생물화학, 경제법학, 계량경제학, 수학철학 등 새로운 학문들이 출현하고있으며 국력을 다투는 주요부문들의 과학발전수준이 첨단, 최첨단에 이르고있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50년동안 콤퓨터처리속도가 100억배이상 늘어나 1m의 1/10억이라는 매우 작은 세계를 관찰할수 있게 되였다. 더우기 인터네트를 통해 지구의 반대쪽상황을 보거나 들을수 있게 되였다.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여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 서기 위해 조선에서는 새 세기산업혁명을 하고있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때 조선로동당은 강국건설을 위해 귀중한 자금을 먼저 현대산업의 기둥인 기계공업에 돌려 지식산업의 본보기를 마련하였다.

CNC 기술은 지식경제시대의 산업혁명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진 경험에 토대하여 조선에서는 최첨단돌파전으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 지식과 경제의 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고있다.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일신시키기 위한 새 세기산업혁명은 가까운 시일에 전반적국력을 강국의 수준으

로 끌어올리며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것이다.

민족의 제일재보인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불패의 군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새 세기 산업혁명을 다그쳐나가는 길, 강국에로의 길은 숭고한 애국애민의 뜻과 의지를 지니신 걸출한 령도자의 희생적인 헌신과 천만고생으로 개척된 길, 변함없이 가야 할 주체의 진로이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강행군을 이어가시다가 달리는 렬차에서 순직하신 장군님과 같으신 그런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김 정 은

4. 선군시대어

오랜 인류력사과정에는 일정한 특징과 기준에 따라 가른 여러 시대들이 존재하였다.

로동도구의 발전에 따라 구분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라든가 사회계급관계에 따라 구분한 노예시대, 봉건시대, 자본주의시대 등을 그 대표적실례로 들수 있다.

20 세기 후반기 조선에서는 력사에 존재한 이여의 모든 시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 시대가 탄생하였다.

그 새 시대는 선군사상에 의하여 펼쳐진 선군시대이다. 독자들이 전편에서 선군사상의 창시와 그 본질적내용에 대하여 보았으므로 이 편에서는 선군사상에 대한 해설을 략하기로 한다.

철저한 반제자주의 사상,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인 선군사상에 의하여 펼쳐진 새 시대, 선군시대에 시대를 특징짓는 어휘들이 많이 태여났다.

이 글에서는 그 많은 선군시대어들중에서 선군으로 존엄높은 조선이 하루빨리 경제강국, 문명강국으로 되게 하시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바치신 애국헌신과 로고와 관련한 어휘만을 적으려고 한다.

인류력사 그 어느 시대에도 있은적 없고 그 어느 사전에서도 본적없는 선군시대어들을 통하여 독자들은 어

떻게 조선이 전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뚫고 강성번영기에 들어섰는가를 잘 알게 될것이다. 아울러 민족의 어버이 **김정일**동지께서 눈물겨운 헌신으로 마련하신 튼튼한 토대가 있어 조선이 강국으로 치솟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것이다.

1)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

강도높은 강행군을 하루, 한달도 아니고 수백, 수천일 련이어 한다는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열화같은 애국애민의 뜻과 의지를 지니고 초강도현지지도 강행군을 쉬임없이 단행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이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끝없이 번영할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일하고있습니다.》

1999 년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대와 인민에게 이렇게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시대에는 천리마를 타고 달려왔는데 새로운 선군시대에는 준마를 타고 구보의 속도로 달려나가야 한다,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려나가다가 당면

고지들을 점령한 다음에는 습보로 넘어가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고.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여 부강조국건설의 방대한 목표를 최단기간내에 달성하시려 그이께서는 불같은 열정을 지니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였다.

인민경제선행부문의 련합기업소들로부터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들까지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들과 농장들을 일일이 찾아보시였다. 그 나날에 기업소들과 농장들이 사회주의경쟁속에 생산과 경영의 주체성과 자립성, 현대화수준을 훨씬 높이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이르는 곳마다에 과수기지와 축산기지, 양어기지, 봉사기지, 문화생활기지들을 새로이 꾸려주시며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고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의 가정도 방문하시며 어버이의 사랑과 정을 안겨주시였다.

중앙과 지방의 대학들과 중학교들, 과학연구기관들을 찾으시여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교육과학을 발전시킬 방도를 명시해주시였다.

여러 양묘장과 산림경영부문사업도 현지지도하시면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된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꾸리기 위한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시고 선군시대를 선도하고 대표하는 명작들이 창작되도록 문학예술부문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렇게 현지지도해주신 단

위는 그 수가 한해에 수백개나 되였으며 조국땅 곳곳을 찾으신 그이의 렬차행군거리는 2009 년에만도 10 만여리에 달했다.

그이의 현지지도는 이처럼 찾으시는 단위수와 가시는 거리에 있어서, 지도하시는 분야의 다방면적인 폭에 있어서 류례가 없는 초강도강행군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단행하시는 속도에 있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도강행군이였다. 그이께서는 하루에만도 여러 단위들을 쉬임없이 지도하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에서 걸린 문제를 푸시려 하루밤에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수도에 서북방으로 천여리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였다.

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목표를 하루빨리 점령하기 위해 나라의 방방곡곡,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를 구보로, 습보로 찾으시는 그이의 현지지도는 말그대로 초강도강행군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을 특징짓는 선군시대어들에는 《천여리강행군》,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이라는 말들도 있다.

천여리강행군

《천여리강행군》이라는 선군시대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보통 하루의 현지지도로정을 표현하는 대

명사이다.

2009 년 2 월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업소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가 도착하지 않아 생산공정을 완결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아시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아무래도 자신께서 직접 가서 대상설비를 잘 만들어 줄데 대하여 과업을 주어야 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2 월의 추위속을 뚫고 천여리밤길을 달려 락원기계련합기업소로 가시였다. 기업소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곧장 대상설비부감도부터 보시고 일군들에게 설비를 제기한내에 꼭 만 들어줄데 대하여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해당 일군에게 과업을 주실수도 있었고 전화로 대책을 세우실수도 있으련만 낮이나 밤이나 비료폭포, 쌀폭포 쏟아질 그날에로 마음 달리셨기에 그이께서는 깊은 밤 천여리길을 주저없이 달려가셨던것이다.

언제인가는 현지지도를 마치고 수도로 오시다가 만 나주지 못한 어느 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마음에 걸려 다시 천여리를 되돌아 가시여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위훈에로 떠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수도에서 북방으로, 도에서 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하루 천여리현지지도 강행군은 난관이 겹쌓일수록, 제기되는 과업이 많을수록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애국의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이께서 단행하신 하루 천여리강행군은 선군조선에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고 새 시대의 전설로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였다.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 최고의 투쟁목표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어느해 겨울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그 길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 가시였다. 령하 20℃ 의 추운 날씨에 몸소 철산봉마루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진하는 야금기지에 더 많은 정광을 보내주자고 광부들에게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2010 년 1 월에는 새해 첫 현지지도로 령하 30℃ 를 오르내리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 눈보라길을 달려오느라 차에는 성에가 하얗게 끼고 천수백여리의 먼 강행군으로 온몸이 굳어져 그이께서는 인차 차에서 내려서실수가 없었다. 몹시 피곤하고 불편하셨지만 그이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이 걱정할가보아 아무 일이 없었던듯이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차에서 내리시여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의 위대한 헌신과 숭고한 뜻, 한없는 사랑은 강성국가건설의 전초선인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그들을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보라를 헤치고 찾아주신 대규모공업기지들과 발전소건설장들, 인민봉사기지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찾으신 일터마다에서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근로자들에게 힘과 담력을 안겨주시였으며 위대한 심장의 열원으로 그들의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켜 강성에로 향한 조국의 전진에 박차를 가하시였다. 인민은 조국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장군님께서 부디 찬눈길을 걷지 마시기를 간절히 아뢰였건만 그이의 눈보라강행군은 생애의 마지막해인 2011 년에도 계속되였다.

1 월의 눈바람을 다 맞으시며 유리병생산기지를 찾으신데 이어 그이께서는 여러 도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과학연구단위,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다.

한겨울의 추위가 더해지는 12 월에도 그이께서는 쉬임없이 종합적인 예술정보기지와 상업봉사기지를 비롯하여 여러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이처럼 추운 겨울날도 가림없이 조국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한여름철, 삼복철

에도 계속되였다.

조선에서는 예로부터 한해중에 제일 무더운 때인 초복, 중복, 말복기간을 삼복이라고 하였다.

삼복기간의 날씨가 너무 무더워 견디기 어렵다는데로부터 나온 《삼복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조선속담도 있다.

바로 그 삼복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기계공업부문의 중요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2011년 7월에는 무더위속에서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장을 오랜 시간에 걸쳐 다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의 기호에 맞고 시대적미감에 맞는 상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공급해줄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사람들이 삼복철에는 어김없이 피서지에서 휴양을 하는것이 상례로 되여있고 조선인민 또한 삼복일과를 하며 해수욕장과 물놀이장, 유원지에서 더위를 가신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에게 보다 강성할 래일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무더위와 장마가 겹친 삼복철의 불리한 날씨에도 현지지도강행군길을 가고 가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자신의 천만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나라의 곳곳을 찾으시는 장군님의 강행군정신은 강

성국가건설에 일떠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승화시켰으며 그이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따라 선군조선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2) 야전식생활

지난 시기 세계정치사에는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 또는 군총사령관이 전시도 아닌 평시에 야전생활을 한 례가 기록된적이 없다.

이 세상 어느 위인에게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야전식생활이라는 말은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열도를 표현하는 말이다.

가장 포악한 미제국주의와 맞서 사회주의붉은기를 지키며 참다운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려는 높은 투쟁목표를 내세운것으로 하여 남달리 고난과 시련에 찬 조선혁명이였다.

그 고난과 시련을 장군님께서는 《돌격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 구호를 드시고 앞장에서 헤치시며 야전식으로 일하고 생활하시였다.

1990 년대 후반기에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례없는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시려, 2000 년대에는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려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은 나의 건강을 념려하여 단 하루라도 편히 쉬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지만 내가 잠시라도 쉬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떠진다고 생각하니 쉬고싶어도 쉴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승용차안이 그대로 식당이고 침실이나 같습니다. 줴기밥과 쪽잠에 대한 일화도 바로 그래서 나왔을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고생으로 여겨본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나의 건강을 념려해주고 당을 따라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분발하여야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나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우리 인민들모두가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행복하게 잘사는 그때에 가서 오늘을 생각하며 푹 쉬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을 달리는 승용차와 렬차안에서 쪽잠으로 피로를 푸시였고 식사로 줴기밥을 들군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잠시라도 쉬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떠진다고,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쪽잠을 피로를 집중적으로 푸는 제일 단잠으

로 여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줴기밥은 품도 많이 들지 않기때문에 준비하기 쉬워서 좋고 아무데서나 펼쳐놓고 먹을수 있어 시간도 얼마 떼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페도 끼치지 않아 좋다고, 줴기밥은 혁명가의 리상적인 도중식사라고 하시며 그것을 제일로 여기시였다.

그 줴기밥마저 바쁜 현지지도의 일과로 드시지 못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식 사업기풍, 생활기풍은 외국방문의 나날에도 변함이 없었다.

달리는 렬차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 담화를 하시고 필요한 자료연구도 하시였으며 밤을 꼬박 새우며 집무를 보시였다. 방문기간 점심시간을 단축하시였으며 분과 초를 쪼개가며 더 많은 대상들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애쓰시였다.

장군님도 인간이시기에 힘이 들어 쉬고싶을 때도 있었고 그 누구보다 가정과 생활을 사랑하시였다. 하지만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마음속에 언제나 안고계셨기에 그이께서는 개인적인 모든것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위해 헌신분투하시였다.

자신의 한몸을 초불처럼 불태우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찾아가시는 길에 야전렬차에서

위대한 생을 마치시였다.

세계정치사에 일찌기 없었던 야전식생활이라는 선군시대어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길데 없는 위인상을 만사람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며 그들모두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 선군조선의 오늘이 있고 강성할 래일이 있음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준다.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그 어떤 적도 건드릴수 없게 하며 전체 인민이 아무런 걱정없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자는것이 바로 나의 구상이며 확고한 결심입니다.》

김 정 일

5. 축포처럼 꽃펴나는 인민의 행복

2009 년 4 월 평양에서는 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맞이한 조선인민의 필승의 기개를 과시하는 《강성대국의 불보라》라는 축포야회가 전례없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축포의 장쾌한 폭음과 함께 각양각색의 꽃보라, 불보라가 천태만상의 조화를 부리며 밤하늘에 불의 신비경을 펼쳐놓았다.

축포야회의 시험발사를 보아주시던 그해 2 월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저 축포의 황홀한 색갈과 같이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천만가지의 행복을 안겨주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단번에 수십만발의 축포를 쏘아올리는 4 월의 장쾌하고 화려한 축포야회는 어머니당이 인민에게 안겨줄 천만가지 복이 어떤것인가를 잘 보여주었다. 사랑하는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하는것을 한생의 리상으로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고생으로 이 땅에는 인민의 행복이 축포처럼 꽃펴나고 있다.

1) 식의주복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만족과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한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복을 타고났다, 복을 받았다 할 때 늘 식의주복을 빼놓지 않고 거론하군 하였다.

식의주는 사람들의 생존과 뗼수 없이 련관되여있으며 식의주복을 떠난 사람들의 행복과 나아가서 사회의 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하여 정치의 옳고 그름도 인민들의 식의주생활을 보면 알수 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창건 첫날부터 인민들의 식의주생활을 책임지고 향상시켜왔다.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그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조선로동당의 품에서 조선인민은 날마다 향상되는 식의주생활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러던 조선인민이 지난 세기 90 년대 후반기 식량난을 비롯하여 생활상애로를 겪으며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였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은 미룰수 없는 강국건설의 중요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수 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려질수 있습니다.》

굶어 쓰러지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변함없이 당을 따르는 사랑하는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공업과 농업을 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총포성없는 전쟁을 치르는 속에서도 품을 들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귀중한 씨앗들을 뿌려놓으시였다.

그이께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낮과 밤이 따로없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애써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이 하나하나 알찬 열매로 이땅에 주렁지고있다.

먹는 문제, 식량문제해결전망이 열리고있다. 뭐니뭐니 해도 인민생활에서 기본은 먹는 문제이며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면 식량생산을 늘이고 축산을 발전시키며 나아가서 과수업과 수산업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

조선에서는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해 농업생산의 기본조건인 땅과 물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농업혁명방침을 내놓고 관철하여오고있다.

1998 년부터 5 년동안 강원도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과 시, 군들에서 단계별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지정리전투로 수십만정보의 나라의 토지가 대규모규격포전으로 번듯하게 정리되였다. 여러단계의 자연흐름식물길공사가 진행되여 나라에 1 만여 km 에 달 하는 자연흐름식물길이 새로 생겨나 곡창지대들에서의 물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등 당의 새로운 농업혁명방침이 제시되고 관철되여 농업생산의 확고한 장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특히 두벌농사면적의 확대와 산간지대에서의 세벌농사경험창조,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확립, 다수확품종과 복합미생물비료에 의한 단위당 수확고제고와 같은 성과로 식량생산을 늘일수 있는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는데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고난의 행군이후 생산을 멈추었던 축산기지들을 그대로가 아니라 현대화하여 가동시키기 위한 사업을 내밀면서 최신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돼지공장, 닭공장, 오리공장, 종축장들을 나라의 여러 곳에 많이 일떠세웠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의 다양하고 고급한 식생활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소목장과 타조목장, 자라공장도 일떠세웠다.

현대적인 대규모의 철갑상어 양어체계가 확립되고 철갑상어, 칠색송어의 바다양식에 성공하는 등 양어업이 최첨단을 돌파하였다. 동해지구에는 연어와 같은 고급어족들의 연구와 양어, 가공이 일체화된 종합적인 양어연구소가 일떠섰다. 산촌, 벌방, 그 어디에나 가능한 모든 곳에 양어기지들이 생겨나 민물고기생산도 부쩍 늘어나고있다.

당정책의 정당성은 인민들의 밥상에서 나타나야 한다며 사회주의수호전의 간고한 나날에 당이 하나하나 품을 들여 마련한 농축산토대가 있어 인민들의 식생활이 나날이 풍성해지고

있으며 소리치며 잘살 날이 가까와오고있다.

대규모본보기과수기지인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이 일떠서고 과수농장들이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과수의 현대화, 집약화, 전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하여 계절에 구애없이 인민들에게 갖가지 과일을 공급하려는 당의 사랑이 알알이 열매로 주렁져 집집마다에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고있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삼일포특산물공장을 본보기로 하여 도마다 종합식료공장들이 새로 일떠서고 이미 있던 곡산공장, 식료공장들이 현대화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해마다 중앙과 도들에서 성황리에 열리는 민족료리축전과 수도와 도, 시, 군마다에 새로 일떠선 급양봉사기지들을 통하여 나날이 개선되는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엿볼수 있다.

유명한 평양랭면과 고기쟁반국수, 자라, 연어, 철갑상어, 메추리료리를 비롯한 각종료리를 봉사하는 옥류관료리전문식당은 조선인민의 식생활수준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과 필수품, 일용품생산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미 있던 중앙과 지방의 방직공장, 신발공장, 일용품공장들이 현대화되고 새로 많이 일떠섬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인민소비품의 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잠재력이

마련되였다.

숨죽었던 2.8 비날론 련합기업소가 개건되여 주체섬유인 비날론이 쏟아지고 여러가지 제품생산이 시작된것은 입는 문제, 필수품, 일용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

경공업제품생산을 활성화하는것과 함께 상업봉사기지들을 현대화하고 새로 꾸리며 상업봉사활동이 철저히 인민적인것으로 되게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돌려지는 생활상혜택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늘어나고있다.

당의 인민적시책이 있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인민생활관련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투쟁열의가 대단히 높은것으로 하여 인민들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 날은 멀지 않다.

고난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조국땅 곳곳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이 말그대로 우후죽순처럼 일떠섬으로써 조선인민의 주택생활조건이 눈에 띄우게 향상되였다.

원래 《선경》은 전설에서 신선이 사는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라는 뜻이다. 이 말에는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궁궐같은 기와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온 조선인민의 소박한 꿈과 리상이 담겨져있다.

원래 조선에서는 국가가 해마다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것으로 하여 자기 집을 쓰며 행복한 생활을 꾸리려는 인민들의 념원이 원만히 충족되여왔다.

국가에서는 새 세기에 나날이 높아지는 인민들의 문화정

서적요구에 맞게 도시와 농촌에서 현대적인 주택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선경을 펼쳤다.

짧은 기간에 평양시에 새 세기를 상징하는 수천세대의 만수대거리와 창전거리 살림집을 비롯한 새 살림집들이 여기저기 일떠선데 이어 지방도시들에도 훌륭한 살림집들이 많이 건설되였다.

도시뿐이 아니다. 농촌들에도 한해에 수백동의 선경마을들이 뽐내며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궁궐같은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뒤동산에는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앞벌에는 풍요한 전야와 규모있는 양어장이 펼쳐져있는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리마을과 사리원시 미곡리마을과 같은 사회주의선경이 산골과 벌방 그 어디에나 경쟁적으로 펼쳐지고있다.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에서 오늘은 신선이 아니라 평범한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이 살고있다.

국가가 매해 수만세대의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배려해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조선뿐이다.

《복지사회》라고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는것이 인민들의 주택형편이다.

남조선사회만 놓고보더라도 1 431 만세대가운데 절반이 넘는 806 만세대가 집이 없이 세방살이를 하고있으며 특히 서울시민인 경우 무려 23~27 년의 로임을 저축해야 겨우 집을 구할수 있어 수많은 빈민들이 《쪽방》이라고 불리우는 0.7~2 ㎥

정도의 현대판판자집에서 고달프게 살아가고있으며 그것마저도 한달에 평균 21만원의 돈을 내고있는 형편이다.

조선인민은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인민도 누리지 못하는 복, 그들모두의 리상으로 되고있고 영원히 리상으로만 남아있을 주택복을 누리고있다.

행복한 식의주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가지가지의 리상이 이렇듯 하나하나 남부럽지 않은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2001년 12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어느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20살안팎의 애어린 청년이 그이께 다가와 닭고기와 닭알을 보내주셔서 잘 먹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그이의 세심한 관심과 현명한 령도하에 일떠선 가금기지들이 은을 내기 시작한것이다.

그의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면 더 바랄것이 없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속에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 요즘은 밤을 새워가며 일하여도 피곤한줄 모르겠고 오히려 힘이 솟는것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이 말씀을 들으며 누구나 알수 있으리라. 인민의 커가는 행복과 기쁨이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하지만 누구도 알수 없으리라. 무슨 말로 다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2) 만복이 온다

조선속담에 《말타면 경마잡히고싶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에 대한 요구외에도 국가와 사회, 자기자신의 존엄과 권위, 건강과 발전을 위한 수많은 요구를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크고 작은 모든 요구를 원만히 충족하며 살 때 만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한 나라, 한 민족이 만복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선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이어 사회주의경제강국, 과학기술선진국의 지위에 올라서고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잘살게 될 최후승리의 날은 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조선인민이 알고 모르고 가지가지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대하여 쓰기로 한다.

인민대중의 복중의 복은 나라의 주인으로, 강국의 인민으로 되는것이다.

나라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면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제기되는 사회정치적요구와 물질문화적요구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현할수 없게 된다. 강국을 건설하지 못하여 외세의 지

배와 간섭을 받게 되는 나라와 인민은 짐승보다 못한 신세가 되게 된다.

조선인민은 일찌기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다. 많은 나라 인민들이 세기를 두고 바라면서도 실현하지 못한 사회정치적요구를 실현한것이다.

조선인민은 존엄높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의 인민으로 되였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주고 값높은 삶의 길,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진로를 밝혀주는 철저한 자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가짐으로써 정신적방황과 깨끗이 결별하는 행운을 지녔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천상의 하느님에게 운명을 걸고 정신적빈곤속에 인생길을 갈팡질팡 걸을 때 조선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손에 틀어쥐고 신심높이 곧바른 길로 나아가고있다. 조선인민은 분렬과 대립, 싸움이 그칠새 없는 인류사에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만민의 이례적인 경탄속에 아로새긴 긍지도 지니고있다. 위대한 사상, 위대한 단결로 만난시련을 헤치며 그 어떤 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군사강국건설을 갈망해온 민족의 숙원을 이루는 영광도 떨쳤다. 세금과 학비, 치료비라는 말조차 모르는 복된 인민이 바로 조선인민이다.

전민이 세금을 모르고 살며 일생동안 무료로 배우고 병나도 치료받을 걱정을 모른다.

식량난, 연료난, 동력난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가 중단없이 실시되여 문을 닫은 학교가 하나도 없었다. 교육발전과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의 관심은 더해만 갔다.

평범한 녀인의 출산을 위해 직승기가 날고 사경에 처한 생명들을 위해 나라에서 비상조치를 취하며 전민을 예방치료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보건시책은 어제도 오늘도 병없이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활짝 꽃피워주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태를 묻은 생명들중 어느 하나라도 꺼질세라 아낌없이 천만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가는 나라의 은혜의 폭과 깊이를 헤아릴수 있게 하는 수많은 자료들중 한가지를 아래에 적는다.

어느 한 돌광산에서 일하던 로동자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치명상을 당했었다.

나이 : 26 살

진단 : 중증뇌좌상, 두개저골절, 기관지페염.

이 사실이 즉시 당에 보고되여 국가적인 비상조치가 취해졌다.

중앙병원에 후송되여 청년은 15 일만에 기적적으로 소생되였다.

의식이 회복된 로동자에게 병원책임일군이 한장의 종이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었다.

《환자소생을 위한 비상조치

- 환자후송에 동원된 운수기재

  직승기 1대, 대형려객기 1대, 기타 구급차들

- 환자치료와 후송에 동원된 기관

  단천시인민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

  조선인민군 항공구분대, 평양민항

- 환자치료를 위하여 무어진 의료집단의 구성

  원사, 교수, 박사 등 10여명

  의사, 간호원 10여명

- 환자치료에 사용된 약품의 종류

  사향, 광폭항생제를 비롯한 고가약 72종

- 환자에게 수혈한 피

  5.7ℓ(사람의 몸에 5ℓ의 피가 있다.)

- 치료비총액

  약 15만US$》

1984년에 남조선에서 수해가 났을 때 괴뢰들의 애걸에 의해 미국과 일본이 수재민구제금으로 던져주었다는 돈이 도합 12만US$였다는 사실과 대비해 볼 때 한 생명을 위한 공화국의 조치는 전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조선인민은 사랑과 믿음, 의리의 륜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려는 인류의 희망이 꽃핀 나라에서 사는 복받은 인민이다.

예로부터 백성은 선정에서는 선인이 되고 악정에서는 악인이 된다고 하였다.

혁명의 근본목적을 인간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데 두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조선은 온 나라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였다.

조선인민은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대가정에서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고있다.

부모없는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친부모처럼 여기고 사랑을 주며 청춘남녀들이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고 전사회가 그들을 위해주는것은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뜻하지 않은 정황에서 전우들과 동지들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내대는 일도 드물지 않다. 생면부지의 사람이라해도 그가 사경에 처하면 기꺼이 나서 구원해주고있다.

로동신문에 실린 하나의 사실자료가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사회적기풍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2012 년 12 월 강령반도 주위섬 순위도의 리금옥녀성과 한 청년은 조개잡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떠내려가게 되였다.

표류하는 그들의 배를 발견한 조선인민군 해병들이 구출작전을 폈다. 매생이가까이에 이르렀다가도 파도에 몇십 m 씩 밀려나기를 그 몇번, 해병들은 얼음물에 뛰여들어 천신만고하여 배와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며 즉시 구급대책을 취하고 자기들의 모포와 외투, 모자까지 씌워 군부대병원으로 후송하였다.

60 여일간 치료가 진행되였다. 그 나날 의사, 간호원들, 해병들이 그들에게 친혈육의 정을 쏟아부었다. 의사들이 정성을

다해 가능한 모든 치료를 다 하였고 간호원처녀들은 리금옥녀성의 몸에서 언독을 빨리 뽑기 위해 그의 찬몸을 몇시간씩 꽉 그러안고 랭기를 자기들의 몸에 빨아들였다. 미음을 그들의 입에 떠넣어주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주느라 모두가 애썼다.

갖가지 필수품과 식료품을 들고 줄곧 찾아오고 그들이 소생했을 때는 진정으로 기뻐 함께 눈물을 흘리던 의료일군들과 군인들이였다.

해병들과 군의소일군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정성속에 그들은 완치되였다.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다 쓰기는 어렵고, 조선의 출판보도물들, 인터네트를 보느라면 독자들은 조선인민 누구라없이 발휘하는 아름다운 소행, 놀라운 사실과 늘 접하게 될것이다.

조선인민은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하는 행복한 인민이다.

주체문학예술은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여주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감정정서를 더욱 풍만히 해주며 날로 개화발전하고있다. 특히 조선로동당의 음악정치로 조선의 음악은 혁명적이며 랑만적인 음악예술의 극치에 이르고있다. 잃은 사랑, 잃은 기회를 한탄하며 비애와 염세에 젖게하는 퇴폐적인 노래가 사람들을 타락과 자살에로 이끌어갈 때 전투적이고 랑만적인 조선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락관을 주며 신념과 의지를 심어주는 정신적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나라의 명산, 명승지마다에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는 인민의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고있다.

룡악산과 칠보산, 구월산, 장수산, 묘향산, 정방산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개건되고 중앙동물원과 마전, 백은산, 석암, 송도원, 와우도의 유원지들이 현대화되여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 끝없이 흐르고있다. 그들의 즐거움 또한 끝이 없다. 수도 평양과 지방들에 공원과 유원지, 유희장과 물놀이장들이 새로 꾸려져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더해주고있다.

룡문대굴과 송암동굴도 발굴되고 잘 꾸려져 사람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안겨주고있다.

몇십m 또는 몇백m씩 가야 명소가 한개씩 있는 다른 나라의 이름난 자연굴들과는 달리 룡문대굴은 가까운 거리들에 명소들이 모여있고 국제적으로 꼽는 11개의 석회석만물이 다 있는 황홀하고 희한한 동굴이다. 룡문대굴의 광장과 폭포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훌륭한 자연경치이다 .

금수강산 천하절승과 사회적재부들도 펼쳐보여주는 동굴은 조선의 지하명승, 지하궁전이며 조선인민은 지하에서까지 남다른 기쁨을 맛보게 되였다.

크고 작은 모든 요구를 하나하나 원만히 실현해나가며 조선인민이 누리는 행복, 커가는 기쁨은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당이 인민을 이끌어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일에 만족을 모른다.

어머니는 슬하의 천만자식의 끝없는 행복을 위해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간다.

어제 오늘에 이어 하나 또 하나 만복이 온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입니다.》

김 정 은

6. 강국건설의 미래

조선인민은 지금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과감히 물리치며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사랑하는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하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웅대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목표!

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건설목표는 점령한것이고 이제 경제강국건설이 당면과제로 남았다.

강국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인류의 리상사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미래를 조선인민은 락관하고있다.

력사속에 미래를 본다는 말이 있다. 선대수령들의 령도하에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옴으로써 조선인민은 다른 나라들에서 수세기에 걸쳐 이룩한 국가건설성과들을 길지 않은 력사적기간에 이룩하였다. 지어 인류력사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지 못한 건국업적도 이룩하였다.

세기적인 변혁을 아로 새긴 조선인민의 건국력사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만이 강국에로의 길, 승리의 길이라는것을 확증해준다.

정치적수령의 리념과 정치실력은 그가 내놓는 사상과 리론,

실천에 의하여 확증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두해 남짓한 짧은 기간에 수십건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여러 로작들에서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는 력사적공적을 이룩하시였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조선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그분들의 뜻대로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시였으며 열가지, 백가지 일을 모두 대원수님들께서 하신대로 해나가신다.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100% 계승하여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인민을 이끄시는 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미래는 창창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정치실력과 풍모를 보아도 조선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그이께서는 짧은 혁명령도의 나날에 그 누구와도 견줄수 없는 높은 정치실력을 조국과 세계앞에 보여주시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민주로총》인터네트 홈페지에 실린 글을 통해 보기로 하자.

《북의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당시)은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자마자 일약 세계적인 명인으로 되였다.

미국의 CNN 방송은 최근 인터네트를 통해 전세계적인 투표로 선정하는 2010년 최고의 10대 관심인물 20인의 후보에 북의 **김정은**대장을 포함시켰고 12월 28일에 세계 최고관심의 10대인물로 선정했다.

…

김정은대장을 후계자로 공식선출한 후 북은 보다 력동적인 활력을 되찾고 세계를 놀래우는 사변들을 련이어 터쳐냈다.

북은 괄목할만한 경제건설성과들을 샘솟듯 창조하면서 동시에 우라니움농축시설공개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두 사변들은 모두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세계적인 특대형사변들로서 **김정은**부위원장이 후계자로 선출 된 후 거둔 일석다조의 성과들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북은 우라니움농축시설의 전격공개를 통해 대북압박전략만을 고집하는 미국에 치명적타격을 가하였다. 이것은 북이 우라니움핵무기까지 포함하여 미국과 싸울수 있는 각종 고성능핵무기들을 제작보유했다는것을 기술적으로, 실물로 증명함으로써 미국이 북을 영원히 이길수 없다는것을 보여준것이다. 그리고 자력으로 경수로를 비롯한 현대적핵원자력발전소도 건설가동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연전술로 북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던 미국의 경제봉쇄 역시 실패했다는것을 세계에 인정시키였다.

또한 북의 민중들에게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적난국타개와

강성대국승리에 대한 신심을 배가로 높여주었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이러한 조치들로 북은 대화를 거부하며 반북대결에만 매달리던 미국을 호되게 후려치고 자기의 목적과 요구대로 미국을 물러설곳 없는 협상탁으로 끌어내 미국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북은 미국뿐아니라 북에 대한 세계적인식과 견해도 바꾸어 놓았다.

극우익보수세력들의 외곡된 선전의 영향으로 북이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는가고 우려하던 세계가 북의 발전하는 현실을 보고 <북의 경제적고사>라는것이 거짓말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북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적수준을 뛰여넘는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는 현실을 보며 세계도 북에서의 강성대국건설이 현실화되고있다는것을 인정하게 되였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한국>의 반북침략전쟁연습에 대한 북의 단호한 대응과 그후의 신축성있는 대응은 북을 명백한 승자로, <한> 반도와 세계평화의 수호자로 또다시 세계에 각인시켰다.

북은 <한국>의 포사격에 대응하여 공관서와 군진지만을 골라 정밀타격함으로써 자기의 무자비한 보복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과시했다. 도발적인 연평도 2 차포사격때에는 예상밖으로 무력대응을 자제함으로서 포한방 쏘지 않고 미국과 <한국>의 포사격을 제압하고 순간에 <한>반도평화의 수호자로 되였다.

북은 연평도문제를 둘러싼 대결전에서 군사적으로, 정치적

으로 모두 승리했고 세계의 면전에서 미국과 <한국> 을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직접 적파괴자로 피고석에 몰아넣었다.

북은 최고단수의 신묘한 군사적대응과 정치외교력으로 세계적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구도를 단번에 되바꾸어놓았다.

북에서 후계체제가 공식화된지 3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는 미국을 자기 배짱대로 다루면서 정치체제 강화, 국방건설, 경제건설 등 할 일을 다 하는 북의 후계자의 첫 실력을 알게 되였고 **김정은**시대의 미래를 예상 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가 공인하듯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세계적인 안목, 출중한 지략과 결단성,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 고 정치, 외교, 군사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사업을 립체적으로 령도하시며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계신다.

조선인민이 높이 모신 또 한분의 선군령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드시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비상히 강화해나가신다.

병사들이 있어 최고사령관도 있다하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판문점과 무도, 장재도 등 최전연부대들과 여러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장병들과 어깨를 겯고 팔을 끼고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따뜻이 보살펴주신다.

장병들모두를 전우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며 때없이 찾아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이의 품속에서 인민군군인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준비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부대의 전투준비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도 제시해주시고 전투승리의 묘술도 가르쳐주신다. 그리고 전군적인 련합훈련과 합동타격훈련, 군부대들의 전투훈련도 몸소 지도해주시여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준비시키신다.

그이께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발사를 민족의 존엄을 걸고 성공에로 이끌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군건설업적을 빛내이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상을 다시금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이께서는 군수공업부문에 대한 현지지의 길을 이어가시며 군수생산의 현대화를 최첨단수준에로 끌어올리며 로동계급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나라의 국방공업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신다. 그이께서는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의 핵위협에 맞서 련속타격, 전면공세로 적들을 제압하고 핵전면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의한 의지와 령활하고 대담한 작전 및 타격능력을 전세계에 보여주시였다.

미제와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능란한 정치군사적 대응으로 강국건설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나가시며 그이께서는 인민을 이끌어 경제강국건설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시였다.

조선인민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그들이 다시

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는 결심을 완강하게 실천해가시는 그이의 헌신적인 로고는 조국의 모습을 눈에 띄우게 변모시키고있다.

국산화된 최첨단기술에 기초한 공장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평양민속공원과 릉라인민유원지, 릉라곱등어관과 인민야외빙상장, 통일거리운동쎈터, 인민극장과 만수교고기상점, 보통강수산물상점, 해당화관, 류경원, 평양국제축구학교, 평양시 모든 구역의 십여개 공원을 비롯한 문화봉사기지들이 1 년 남짓한 기간에 도처에 수많이 일떠섰다.

최첨단과학기술 개척자들의 창조정신, 투쟁기풍으로 나노기술, 정보기술, 생물공학기술과 같은 핵심기초기술분야에서 과학자들이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참신하고 전투적인 모란봉악단출현으로 음악예술발전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고 그들의 창조본새를 따라 온 나라에 거세찬 창조열풍이 일고있다.

새 품종 잔디심기를 비롯하여 나라의 원림화, 수림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여 도시와 마을의 풍치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무한히 헌신하시며 한없이 겸손하고 소탈하며 자애로우신 그이의 인민적풍모는 사회의 일심단결을 새로운 높이에서 공고화하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허물없이 대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기

는 친화력을 지니고계신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대국상의 나날에도 인민들이 추위에 떨세라 보살펴주시고 수도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할 대책까지 세워주시였으며 평범한 체육인의 해외치료까지 관심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해동안에 수도에만도 수천세대의 궁궐같은 살림집을 지어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나누어주시였다.

호화로운 주택에 입사하여 행복을 누리는 여러 가정들을 부인과 함께 찾으시여 허물없이 마주 앉아 진심어린 축하도 해주시고 준비해오신 가정용품도 안겨주시며 기쁨을 더해주신 그이시였다.

인민의 유원지를 찾으시여 몸소 도로짬의 풀도 뜯으시며 일군들에게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심어주시고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선편리성, 후미학성》의 관점에서 만들어 인민에게 조그만한 불편도 주지 말데 대한 가르치심도 주신다 .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돌전 어린이며 유치원어린이, 소년단넥타이를 멘 어린이 등 만나시는 모든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고 볼도 다독여주시고 친근하게 얘기도 나누시며 기념사진도 찍어주신다.

어머니는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으며 병신자식일수록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쓴다시며 계급적토대와 가정주의환경, 사회정치생활경위에 관계없이 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따뜻이 안아 보살펴주신다.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희망도 꽃피워주시고 마음속 아픔도 헤아려주시는 그이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하여 어려운 날 나라를 버리고 갔던 사람들도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고있으며 군인들과 인민들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친 훌륭한 화폭이 펼쳐지고있다.

그이의 불같은 인정의 세계, 바다같은 도량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강성국가건설을 비약시키는 위대한 원동력으로 된다.

하여 조선인민은 친근하신 그이 모셔 강산은 따뜻하고 영명하신 그이 계셔 미래는 창창하다고 노래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당과 수령에게 충정하는 인민, 자력갱생의 전통을 빛내여온 자랑스러운 인민이다.

그들은 백두의 수림속에서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백만의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을 안아왔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제 2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들은 천리마를 타고 수세기를 비약하여 14 년만에 공업화를 실현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자력갱생의 힘으로 선군의 길에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첨단, 최첨단돌파의 기적을 안아온 영웅적인민이다.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연길폭탄의 력사와 《천리마시대의 서사시》를 배우며 자란 조선인민, 날에 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 조선인민에게 점령못할 요새, 뚫지 못할 난관은 없다 .

위대한 수령이 있고 위대한 인민이 있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집필: 리정화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인쇄: 주체 103(2014)년 2 월 15 일

발행: 주체 103(2014)년 2 월 25 일

ㄱ-35166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3(2014)년